

전략적 역할 분담으로 양계농가 안정화



▲ 제휴 협약식 모습(좌부터 임교석 농협중앙회 김포시 지부장, 임재룡 김포축협 이사, 임한호 김포축협 조합장, 권우택 안양축협 조합장, 강병수 김포계란유통센터 대표, 이윤호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부분부장)

김포지역 계란사업이 지역 축협을 중심으로 활성화 바람을 타고 있다. 지난 1월 김포계란유통센터가 개장식을 한데 이어 발빠르게 김포축협(조합장 임한호)은 본격적인 산란계 계열화 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소재 황제가든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는 김포축협을 비롯 안양축협, 산란계조합원, 김포계란유통센터가 사업제휴를 체결했으며 농협김포시지부, 김포시, 축종별협회, 양축농업인 등 150여명이 자리를 합

께하며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임한호 김포축협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계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축종에 자부심을 가지고 산란계 계열화 사업에 참여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축협에서도 산란계 계열화 사업을 통해 양계농가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산란계 계열화사업의 성사를 위해 적극 힘써온 임재룡 김포축협 이사(전 대한양계협회

김포강화지부장은 “김포지역 계란 사업이 활성화와 양계농가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지역축협을 통한 이번 계란사업이 타 지역에서도 도입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거듭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포축협은 산란계 계열화 사업을 통해 김포축협, 참여조합원, 김포계란유통센터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양계산업 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서로 편익에 치중하지 않고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욕구에 맞는 고품질 계란의 생산 가공 유통체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조합원의 안정된 계란 생산기반 및 판로 확충마련으로 축협 경제사업 및 지도사업



▲ 임한호 조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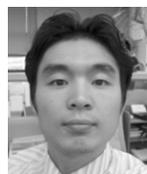
▲ 임재룡 이사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약식을 계기로 김포축협을 중심으로 김포계란유통센터, 안양축협배합사료공장이 준비 중인 계란브랜드는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농축산물 통합브랜드 ‘김포금(금) 시리즈로 일환으로 ‘김포술란’이라는 브랜드로 출범하게 된다.

또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김포축협을 브랜드 사업을 주관하고 출자와 정산을 담당하며 안양축협배합사료공장은 브랜드 전용사료 개발과 사양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또한 김포계란유통센터는 회원농가의 계란수입 및 거래처 확보 등 영업을 맡게 되며 김포시는 통합브랜드를 출범 시키고 브랜드 육성과 홍보를 전담하게 된다.

김포시 지역경제과 박창원 팀장은 “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김포축협과 함께 김포시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된 ‘김포술란’ 유통브랜드 계란을 대형유통매장, 학교급식, 관내 중소기업의 식자재 납품 등을 통하여 자체유통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재 | 기영훈 기자
theme6017@hanmail.net



▲ 김포축협에서 출시하는 ‘김포술란’



▲ ‘김포술란’ 사업설명회 모습